

부부간 가사노동분담과 공정성 인지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Couples and the Sense of Fairness on Marital Satisfaction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문 숙 재
성신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허 경 옥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대학원졸업 홍 윤 정

Dept.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Professor : SookJae Moon

Dept.of Home Management, Sungshin Women's Univ.

Lecturer : Kyungok Huh

Dept.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Graduate School Student : YounJung Ho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attern of division of household labor between married couples and the determining variables of the division of household work.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pattern of the division of household work and the sense of fairness on marital satisfaction.

Two hundreds forty two married couples living near Seoul were selected. Both wives and husbands reported their daily time-use pattern.

According to the results, flexibility of husbands' work schedules, hours of market

work of husbands, husbands' sex role attitudes, and the presence of household assistant affected significantly on the extent of household work time. In addition, husbands' household work time had direct effects on marital satisfaction of couples. In wives' hours of household labor, the significant variables were wives' employment status, presence of younger children, total income, wives' sex role attitudes, and hours of household labor performed by housework assistant. In addition, wives' sense of fairness had impact significantly on marital satisfaction.

1. 서론

현대산업사회의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중의 하나는 미혼여성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경우 70년에 31.9%에 불과하던 여성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80년에는 37.5%, 90년에는 40.4%(한국연감사, 1992)로 그리고 94년에는 47.9%(통계청, 1995)로 급증하였다. 특히 25-54세 여성취업인구가 70년에는 약 20만명이었던 것이 90년에는 450만 명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연감사, 1992). 계속적 경제성장 및 산업발달로 인한 여성노동력 수요증가와 여성의 사회참여욕구 증가로 우리 나라 기혼여성의 시장노동참여는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기혼여성의 시장노동참여가 크게 증대되면서 가정내에서 대두하게 된 중요한 이슈는 “가사노동분담”이다. 가족구조의 변화, 즉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의 전환으로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을 부부가 직접 수행해야 할 상황이 되면서 부부간 가사노동분담은 점차 가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이 되고 있다. 게다가 유급가사조력자의 활용이 임금을 상승으로 인한 비용적 부담과 조력자 공급부족으로 과거보다 실질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어 가정내 가사노동분담 문제는 더욱 가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성에 따른 역할의 가치관 및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 변화는 남편의 가사노동 및 육아참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남편은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과 훈육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와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허경옥, 1994). 이와 같

은 사회적 변화에 기초하여 남편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참여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면서 가사노동분담 문제는 부부간의 주요한 의사결정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상황적 기대 및 요구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가사노동참여 정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Coverman, Sheley, 1986; 이기영, 이승미, 1994, 1990; 이정수, 고경애, 1985). 남편의 저조한 가사노동참여는 사회적 관습,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과 태도, 개인과 가족이 처해 있는 물리적 여건, 가족환경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는 개인적 선택이며, 개개인과 가정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개인적, 가정적 배경요인이 남편의 참여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지, 또한 부부간 가사노동분담 실태를 결정하는 유의한 영향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실태를 파악하고 가사노동분담의 결정요인을 조사한다.

가정내 가사노동분담 정도는 주부 및 남편을 포함하여 가족원의 복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Hochschild, 1989). 그러나, 가사노동분담이 부부의 결혼만족도 및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감이 높아져 왔으나 그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우리 나라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분담실태 파악에서 그치지 않고 가사노동분담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한다.

가사노동분담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할 때 같은 수준의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대해서도 어떤 부인은 만족도가 높고 또 다른 부인은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 정도 그 자체보다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선행연구들(예: Lim, 1993; Parejko, 1990; Yoge, Brett, 1985)은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공평성 인지도 개념을 매개 개념으로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이외에도 공평성 인지도의 개념을 통한 간접효과를 조사하였다. 공평성 인지도는 노동분담에 대한 주관적 평가 개념으로 가사노동분담만의 단편적 차원의 공평성 인식보다는 가사노동, 시장노동 등을 포함한 전체적 노동분담에 대한 평가가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함에 있어 적절함으로 전체적 노동분담에 대한 주관적 공평성 인지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분담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파악한다. 셋째,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과 노동분담에 대한 부부의 공평성인지가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힌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부부의 가사노동분담 실태 연구

최근 수행된 가사노동시간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 정도를 살펴보자. 최근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 주부는 대략 평일 하루 약 7-8시간을, 남편은 20분에서 1시간 정도(이현아, 1994; 이기영 외, 1996; 이기영, 이승미, 1994)를 가사노동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부인의 시간에 비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가사노동시간을 비교, 정리한 문숙재(1991)와 김정희(1993)의 연구에서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대략 8-10시간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최근 들어 주부의 가사

노동시간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으나, 남편의 가사노동참여 정도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의 비교에서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일치하는 결과는 부인의 경우 남편보다 거의 2-3배 가량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한다는 것이다.

부인의 과중한 가사노동, 다시 말해, 남편의 저조한 가사노동참여는 부인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최근 연구에서 부인의 취업은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를 다소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맞벌이가정에서조차 남편의 참여는 저조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다.

연구결과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미국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율은 약 25%에서 40%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Bergen(1990)의 연구에서 미국 남편의 주당 가사노동시간은 14시간으로 부인 시간의 31%정도라고 하였다. 활동별로 남편의 참여율을 살펴보면, 옥외청소 및 정원손질 등의 활동에 73%, 자동차 수리, 청소 및 관련 일에 92%, 세금내기, 서류 및 영수증 정리 등에 41%정도의 분담률을 나타내고 있어,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는 남편중심형 과업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실태를 통해 여전히 가사노동은 성에 따른 역할분리가 뚜렷한 활동임을 알 수 있다. Coltrane과 Ishii-Kuntz(1992)의 연구에서 남편의 여성중심형 과업(예: 음식만들기, 설거지, 집안청소)의 가사노동분담율은 19.3%인 것으로 나타나 Bergen(1990)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는 보다 남편중심형 과업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가사노동분담의 개념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가사노동분담 연구에서는 대부분 남편과 주부의 절대적 의미의 가사노동시간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은 개념적으로 볼 때 상대적 의미의 시간(relative time)을 의미한다. 각각의 남편과 부인의 절대적 의미의 시간(absolute time)을 비교할 경우 분석단위가 개인이 되

며 주부전체의 시간과 남편 전체의 시간을 비교하게 되어 진정한 의미의 부부간의 분담에 관한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부의 시간사용결정은 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므로 개인단위의 분석보다 부부단위의 분석이 바람직하다.

가사노동분담을 나타내는 상대적 의미의 시간 측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첫째, 부부 중 누가 가사노동분담을 더 많이 수행하였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Warner(1986)는 이를 상대적 등급 측정법(relative rating technique)이라 명하였다. 이 방법은 부부의 상대적 가사노동분담을 성별에 따라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주부가 대부분, 주부가 남편보다 많이, 똑 같이, 남편이 주부보다 많이, 또는 남편이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수행하였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Coltrane(1990), Condran과 Bode(1982) 등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둘째, 부부간의 가사노동시간을 비율화하여 상대적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가사노동분담을 연구하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다(예: Bergen, 1990; Perry-Jenkins, Crouter, 1990; Rexroat, Shehan, 1987). 다시 말해,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중 남편 시간의 비중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계산방법: (남편시간/부인시간)*100). 이 방법은 첫번째 측정 방법보다는 분 또는 시간 등 정확한 단위로 측정하여 비율화 시킴으로써 가사노동분담정도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이다(Warner, 1986). 따라서,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을 연구할 때 분석단위가 부부가 되어야 하며, 단순히 절대적 의미의 시간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상대적 의미의 시간개념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사노동분담 결정요인 연구

가사노동분담을 결정하는 관련 요인 조사연구에서 많은 요인들의 영향력이 조사되어 왔는데 무엇보다도 주부의 취업 특성이 주요 변수로 취급되어 왔고 그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검증되어 왔다. 주부의 취업과 관련한 변수의 중요성은 이용가능시간 가설(time availability)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가설은

시간계약으로 인하여 이용가능한 시간이 부족한 경우 가사노동에의 시간할애는 적어지게 된다는 것이며 보통 시간계약의 정도는 주부의 취업상태 또는 수입노동시간으로 측정한다. 가사노동분담과 관련하여 배우자중 근로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그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게 됨을 의미한다. 한편, 주부의 시간계약은 남편에게는 가사노동 수요증가의 의미를 갖게 된다.

주부의 취업상태가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결과에서 대체적으로 주부의 취업상태에 따라 주부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은 큰 차이가 있으나 남편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기영과 이승미(1994)는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실태를 가정생활주기와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주부의 경우 생활주기와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가사노동시간이 차이가 있었으나,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생활주기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이현아(1994)의 남편의 시간사용과 관련한 변수들의 효과 검증 결과에서, 우리 나라 남편의 경우 아직도 성역할의 분리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여 시장노동시간의 감소가 가사노동시간을 증가시키지 않고 사회·문화적 시간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하였다.

조미환(1996)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결정요인을 구별·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맞벌이가정에서 성역할 태도, 부부간의 권력, 남편의 취업시간, 막내자녀 연령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고, 비취업주부가정 남편의 경우, 남편 자신의 취업시간만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관련변수의 영향력이 다름을 알 수 있고, 비취업주부가정보다 맞벌이가정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고 또 관련변수들의 설명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나라 연구에서는 주부의 취업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밝혀진 연구(예: Huber, Spitze, 1983; Maret, Finaly, 1984)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예: Beck, 1985; Coverman, Sheley, 1986)가 있어 주부취업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력 조사 연구결과는 일치하

지 않고 있다.

주부의 취업상태이외에도 성역할관념 가설(sex-role ideology hypothesis)에 근거한 성역할에 대한 관념이나 태도의 영향력도 검증되어 왔다. 성역할관념 가설은 성에 따른 역할, 부모의 역할, 주부의 취업, 남편의 가사노동참여 등에 대한 정신적 사고 또는 가치관이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Barnett, Baruch, 1987; McHale, Huston, 1984).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의 결과(예: Barnett, Baruch, 1987; Coverman, 1985; McHale, Huston, 1984)에서 이 가설의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Blood와 Wolfe(1960)는 가사노동분담이 부부간의 상대적 자원을 고려하여 나타나는 결과이지 신념이나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 영향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 가설의 효과를 부인하였다.

소득, 교육수준, 직업 등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효과 역시 검증되어 왔는데 이 변수들이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한 연구들의 결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가사노동시간과 육아시간을 따로 구분하여 조사한 Coverman과 Sheley(1986)는 남편의 교육수준과 자신의 육아시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으나 가사노동시간과는 부적인 관계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교육의 효과는 성역할관념 가설과 상대적 자원 가설의 논리에 따라 설명되고 있다. 성역할관념 가설에 의거하면, 교육수준은 성역할 태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남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전통적, 자유주의적 또는 성에 따른 역할 분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갖으며, 결국 이같은 태도와 가치관이 가사노동참여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Perry-Jenkins, Crouter, 1990). 한편 각 배우자의 교육수준의 정도는 가사노동분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수행과 교육수준은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주장도 보고되고 있다(Barnett, Baruch, 1987). 이 같은 견해는 상대적 지원가설(relative resources)에 근거한 논리로 소득, 교육수준, 직업상 지위와 같은 부부간의 자원소유의 비교에 의해 가사노동시간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사노동은 기피하고 싶고, 하기 싫

은 반복적 노동으로 자원소유의 면에서 우위에 있는 배우자는 열세에 있는 배우자보다 가사노동시간이 짧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부인보다 높은 남편은 그렇지 않은 남편보다 가사노동시간이 짧다는 것이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중 가사노동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온 요인으로는 어린 자녀의 존재유무나 가사조력자의 존재 등이다. Coverman(1985)의 가사노동시간 연구에서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정의 경우보다 주부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유의하게 긴 것으로 밝혀졌다. 송혜림(1988)의 연구에서 가정고용인이 있는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연주(1984)의 연구에서는 고용인에 관련된 변인을, 가족수입과 연결시켜, 취업 주부의 수입이 많을수록 고용인의 가사수행이 증가하는 반면, 수입이 적을수록 고용인의 도움이 적어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3. 가사노동분담과 결혼만족도 연구

결혼만족도의 정의는 학자의 견해에 따라 그 차이가 있는데, 가정학에서 주로 연구되어 지고 있는 결혼만족은 결혼생활의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개인이 경험하는 행복, 만족, 즐거움이라는 주관적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연구자마다 다양하다. 결혼만족의 개념을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좁게는 부부관계에 관련된 측면만으로 제한하여 측정된 경우와 넓게는 부부관계를 포함한 결혼생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측면을 포함시켜 측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기영(1984)의 연구에서 각 측정내용들 간에는 서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결혼만족 개념이 그 측정내용의 범주의 차이에 따라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분담과 관련시켜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그 척도를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 감정과 배우자와의 관계 및 배우자에 대해 갖는 개인의 주관적 감정을 측정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가사노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자. Ross, Mirowsky, Huber (1983)는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에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주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남편이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보다 더 '우울함'을 경험한다고 밝혔으며 이런 현상은 취업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특히, 맞벌이부부들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사노동분담의 문제는 이들에게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Yogev, Brett, 1985). 남편의 가사노동 및 육아노동참여는 남편 자신뿐만 아니라, 주부, 그리고 가족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맞벌이가족의 경우 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arnett, Baruch, 1986; Hochschild, 1989). 또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주부와 남편 모두의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itor, 1991; Yogev, Brett, 1985).

우리 나라의 경우 도시가정의 남편을 대상으로 한 윤명희와 임정빈(1985)의 연구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각각 결혼만족도와 긍정적 관계로 나타나 가사노동참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제 참여행동도 높을 때 결혼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최신덕(1986)의 연구에서도 도시주부의 경우 남편의 가사일 보조가 많을수록 결혼생활에 보람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반면, 남편이 가사일에 관심이 없을수록 실망하고 후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사노동분담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 고려할 것은 같은 수준의 가사노동분담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만족도가 높고 또 다른 사람은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개인의 주관적 사고 등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도 인지에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에 의해 개인의 만족여부도 달라 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개인적, 주관적 인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Thompson(1991)은 정당화(justification)와 공평성인지(sense of fairness)개념을 통해 가사노동분담의 결

과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Pina와 Bengtson(1993)은 가사분담과 주부의 행복감을 설명함에 있어 가사분담의 직접적 효과보다는 남편으로부터의 지지감(feeling of support)이라는 개념을 통한 간접효과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 보다 자유주의적인 사고관을 가진 취업주부의 경우 공평한 가사분담은 남편으로부터의 지지감을 증가시키고 결국 주부의 행복감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Pleck(1985)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주부의 기대가 높을수록 가정생활 및 부부 만족도에 있어 더 불만족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Pina와 Bengtson(1993)의 연구와 Pleck(1985)의 연구는 공평성 개념이 아닌 지지감과 부인의 기대감이라는 개념을 통해 행복감을 설명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가사노동분담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함에 있어 주관적, 심리적 과정(가사분담의 간접효과)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평성인지도 개념을 사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Yogev와 Brett(1985)의 연구에서 결혼만족도와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공평성 인지와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가사노동이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다고 인지될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Lim(1993)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주부의 공평성인지도, 그리고 남편의 가사노동수행성과에 대한 주부의 평가(불평 빈도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주부의 생애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주부의 생애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부의 공평성인지도와 남편의 가사노동수행평가는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나, 가사노동시간의 직접효과보다는 간접효과의 중요성과 함께 공평성인지도 개념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Parejko(1990)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공평성 인지도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때, 가사노동분담과 주부의 만족도에 관한 모델설정에 있어 매개변수로써, 공평성인지도의 중

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공평성 인지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편보다 주부의 경우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가사노동분담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분담자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 주관적 개념인 공평성 인지라는 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있어 가사노동분담의 효과가 다르게 적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조사대상은 서울시와 그 주변 위성도시에 거주하는 결혼한 부부로서 분석단위는 부부이다. 본 조사에 앞서 1995년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40쌍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설문지의 문항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1995년 9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520쌍의 설문지를 1개 유치원, 1개 국민학교와 1개 중학교를 중심으로 배부하고 일부는 개별 면접을 통해 조사하였다. 부실 기재된 자료와 본 연구대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242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에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분담을 설명하는 관련 변수로 남편의 배경변수, 주부의 배경변수, 그리고 가정환경 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이 변수들이 가사노동분담에 미치는 영향을 중회귀분석을 통해 조사하였다. 남편의 배경변수는 남편의 교육수준, 직업, 시장노동시간, 근로시간 조건의 융통

성, 그리고 성역할 태도이며, 주부의 배경변수는 주부의 취업상태와 성역할 태도를, 가정환경 변수에는 가계 총수입, 가사조력자의 가사노동시간, 그리고 미취학자녀의 유무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분담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와 노동분담에 대한 부부의 공평성인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모두 파악하였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3. 조사도구와 변수측정

1) 가사노동시간 및 가사노동 분담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시간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사노동에 포함되는 영역을 식사 관련 활동, 주거 관련 활동, 의복 관련 활동, 관리 및 구매, 자녀양육 관련 활동 등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남편과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중 하루와 일요일 하루에 사용한 시간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을 산출하였다. 가사노동분담은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남편의 상대적 참여정도로써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중 남편의 시간비율로 측정하였다.¹⁾

2) 노동분담에 대한 공평성인지

가정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가사노동 및 육아활동, 그리고 노동을 포함한 활동에 대한 남편과 주부의 시간사용 또는 노동분담의 상황에 대해 공평성의 정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하는 주관적 인지의 개념으로 측정하였다. 이 공평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lair(1992), Yogev와 Brett(1985)가 사용한 공평성 척도를 참고로 하였다.²⁾

1) 남편의 상대적 가사노동시간 = (남편의 가사노동시간/부인의 가사노동시간)*100

2) 공평성 측정을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귀하께서 수행하시는 노동(직장노동, 가사, 육아 등)과 배우자께서 수행하시는 노동(직장노동, 가사, 육아 등)은 남편과 부인의 역할분담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공평하다고 여기십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선택에 있어서는 '매우 공평하다'에서 '매우 불공평하다'에까지 5점부터 1점을 주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평하게, 점수가 낮을수록 불공평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3) 부부의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의 척도는 결혼생활의 전반적 만족, 결혼생활의 애로 요인, 부부관계의 불만요인 영역의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의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1점부터 5점까지이며 총점수범위는 최하 10점부터 최고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을 나타낸다. 각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척도인 Cronbach α 는 주부의 경우 0.90, 남편의 경우는 0.89로써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4) 독립변수

남편과 주부의 배경변수, 그리고 가정환경변수가 독립변수로 사용되었다. 교육수준은 국졸의 경우 1, 중졸의 경우 2, 고졸은 3, 대졸은 4, 대학원 이상은 5로 측정하였다. 직종은 전문직과 비전문직으로 가변수 처리하였고 전문직은 전문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직, 중소기업주 및 자본가, 정부고위관리 등을 비전문직은 단순노무직, 판매 및 기술직, 가내 제조업자, 영세자영업상의 경우로 분류하였다. 시장노동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성역할태도는 성별에 따르는 역할에 대한 정신적 가치관이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5가지 질문³⁾이 사용되었으며 이 문항들의 내적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 는 0.74이었다. 출퇴근시간의 융통성은 본인 스스로가 융통성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와 없다고 대답한 경우로 분리하여 가변수 처리하였다. 가정환경변수인 가사조력자의 가사노동시간은 주당 조력시간으로 하였고, 미취학자녀의 유무 역시 미취학자녀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가계총수입은 세금공제이후 월평균 소득으로 측정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단순빈도와 백분율의 분석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 부부의 연령은 30대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남편의 평균연령은 38세, 여성은 35세였다. 교육수준은 주부의 절반이 고졸의 교육수준으로 나타났고 남편의 약 1/3은 고졸, 1/3은 대졸로 나타나 남편의 교육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64%가 비취업상태였고 취업주부의 2/3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남편중 34%가 전문직 종사자였다. 남편의 60%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월평균 소득을, 취업주부의 절반이상이 100만원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었는데 남편의 평균 소득은 1백7십만원, 부인은 1백2만원이었다. 주당 근로시간은 남편의 경우 절반정도가 50-70시간의 과중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고, 남편의 근로시간은 취업주부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8시간, 취업부인의 경우 48시간이었다.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 남편에 비해 주부는 다소 자유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분담에 대해서는 남편 보다 주부들이 보다 불공평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가족의 절반이상이 2자녀를 가지고 있었으며 17%정도의 가족은 부모, 친척을 포함하는 가사노동 조력자를 활용하고 있었다.

2. 편과 주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분담 정도

남편과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평일 하루 부인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9시간 39분, 휴일은 10시간으로 나타나 휴일의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지 않았다. 남편의 경우 평일에 평균 1시간 16분을 휴일에 3시간 8분을 할애하고 있어, 휴일의 남편의 참여시간은 평일보다 길었다. <표 2>에서 나타난 남편과 주부의 하루평균

3) 다섯 가지 질문은 허경옥(1994, 1997)에서 사용한 것과 같음.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집단		남 편 빈도(%)	부 인 빈도(%)	변수집단		빈도 (%)					
연 령	20대	16 (6.6)	31 (12.8)	자녀수	무	15 (6.2)					
	30대	126(52.1)	144(59.5)		1명	37 (15.3)					
	40대	74 (30.6)	53 (21.9)		2명	156(64.5)					
	50대 이상	26 (10.7)	11 (4.5)		3명이상	34 (14.0)					
학 령	중졸이하	11 (4.5)	24 (9.9)	가사노동 노 력 자	유 무	42 (17.4) 200(82.6)					
	고 졸	85 (35.1)	121(50.0)								
	전문대졸	17 (7.0)	20 (8.3)								
	대 졸	91 (37.6)	50 (20.7)								
	대학원 이상	26 (10.7)	26 (10.7)								
직 업 지 위	무직/주부	1 (.4)	155(64.0)	막내자녀 연 령	6세이하	121(50.0)					
	노동판매직	12 (5.0)	17 (7.0)		7-12세	50 (20.7)					
	자 영 업	59 (24.4)	15 (6.2)		13-18세	41 (16.9)					
	사 무 직	66 (27.3)	26 (10.7)		19세이상	15 (6.2)					
	전문관리직	102(42.1)	28 (11.6)								
월 평 균 소 득	0원(무직)	1 (.4)	155(64.0)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표 본 수				
	50만원이하	4 (1.7)	20 (9.0)	남편근로시간	7.78	16.74	189				
	51-100만원	25 (10.3)	32 (13.2)					주부근로시간	48.10	26.57	68
	101-150만원	76 (31.4)	17 (7.0)					가계소득	1,781	76.50	189
	151-200만원	77 (31.8)	12 (5.0)								
201만원 이상	45 (18.6)	1 (.4)									
시 장 노 동 시 간	0시간(무직)	1 (.4)	155(64.0)	노동분담 공 평 성 인 지	공 평 보 통 불공평	64 (26.4) 103(42.6) 63 (21.9)	27 (11.2) 78 (32.2) 124(51.2)				
	30시간이하	4 (1.7)	10 (4.2)								
	31-50시간	88 (36.4)	42 (17.4)								
	51-70시간	102(42.1)	28 (11.6)								
	71-90시간	26 (10.7)	3 (1.2)								
	91시간 이상	11 (4.5)	0 (0.0)								
성 역 활 태 도	자유주의적	4 (1.7)	15 (6.2)	결 혼 만 족 도	만 족	113(46.7)	83 (34.3)				
	중 간 형	122(50.4)	182(75.2)		보 통	115(47.5)	138(57.0)				
	보수주의적	111(45.9)	38 (15.7)		불만족	3 (1.2)	11(4.1)				

가사노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남편에 비해 주부가 월
등히 더 많은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미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

하는 것으로(박주희, 1985; 송혜림, 1988; 허경옥,
1995) 대부분의 가사노동은 주부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남편과 주부의 가사노동시간(단위 : 시간/분)
(N=242)

1주일중 하루평균		평 일 평 균		휴 일 평 균	
남 편	부 인	남 편	부 인	남 편	부 인
1시간34분	9시간40분	1시간16분	9시간39분	3시간 8분	10시간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은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남편 시간의 비율로 계산되었고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남편의 평일 하루 평균 가사노동참여도는 약 15%로 나타났고, 휴일에는 37%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주부의 가사노동의 약 1/4정도(주중, 주말을 포함한 1주일중 하루의 평균 참여율)가 남편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선행연구결과보다 다소 높은 수행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남편의 상대적 가사노동시간(단위 : 백분율)
(남편시간/주부시간)*100(%) (N=242)

1주일중 하루평균	평 일 평 균	휴 일 평 균
25.5(%)	15.0 (%)	37.0 (%)

평일과 휴일로 구분하여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 정도를 살펴보면, 주중보다는 휴일에 많이 분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이용가능시간 가설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주중에 남편은 과중한 시장노동시간으로 시간제약상 가사노동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주말에는 이용가능시간이 길어 가사노동 참여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부부의 가사노동분담 영향요인 분석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남편의 시간을 비유희하여 측정된 가사노동분담에 대해 남편 및 주부의 배경변수와 가정환경 변수의 영향력을 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남편의 근로조건, 남편의 시장노동시간, 남편의 성역할태도 그리고 가사조력자의 가사노동시간이었다. 남편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

을 때, 남편의 시장노동시간이 적을수록, 남편의 분담은 증가하였다. 남편의 성역할태도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자유주의적일수록 남편의 절대적 가사노동시간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주부의 절대적 가사노동시간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우리 나라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의 소극성은 과다한 수입노동시간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성역할에 대한 남편과 사회 전체적 가치나 태도가 보수적이며 역할분리 의식의 뚜렷함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성역할 태도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성역할태도의 영향력이 기본적 가정과 맞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추측할 수 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성역할태도와 관련한 문항에 응답할 때 중간값을 취하는 경향이 있는 점이다. 응답자들은 민감한 질문 또는 무성의함의 결과로 중간 값을 취하는 경향이 있어 이 변수의 측정이 어렵다. 또 하나는 가치관과 실제 행동과의 불일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남편이라도 실제 가사노동참여는 저조하고, 역으로 전통적인 사고관과 태도를 가진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사노동참여는 적극적일 수 있다. 결국 후속연구에서는 성역할 태도의 측정방법, 가치관과 행동과의 관계 등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4. 가사노동분담과 공평성 인지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가사노동분담과 노동분담에 대한 부부의 공평성인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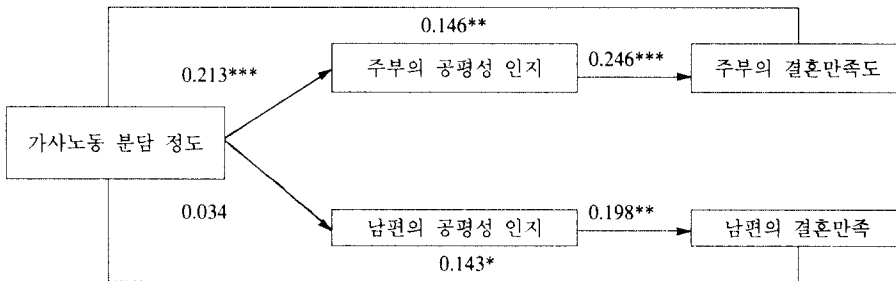
경로분석결과, 가사노동분담은 주부의 결혼만족도, 남편의 결혼만족도 그리고 주부의 공평성인지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나타냈다. 한편, 노동분담에 대한 남편과 주부의 공평성인지는 각각의 결혼만족도에 모두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사노동분담이

〈표 5〉 남편의 상대적 가사노동시간과 노동분담에 대한 부부의 공정성인지도 및 결혼만족도에 대한 총경로효과

(N=242)

종속변수	독립변수	인과적 효과		총효과	F값
		직접효과	간접효과		
주부공평성인지	남편시간	.213**		.213**	F=9.962**
주부결혼만족도	남편시간	.146*	.052	.198***	F=9.823***
주부공평성인지		.246***		.246***	F= 9.823***
남편공평성인지	남편시간	.034		.034	F= .233
남편결혼만족도	남편시간	.143*	.008	.151**	F=6.702**
남편공평성인지		.198**		.198**	F=6.702**

* P<.05, ** P<.01, *** P<.001



* P<.05, ** P<.01, *** P<.001

〈그림 1〉 가사노동분담, 공정성 인지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결과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 변수인 공정성인지를 통한 간접효과는 주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남편의 경우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가사노동이 여전히 여성의 일로 간주되는 현실에서 가사노동분담이 남편보다 주부의 만족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공정성 인지도의 영향 역시 주부에게 강하게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이 증가할 수록 주부의 노동분담에 대한 공정성인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설득력 있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노동분담의 공정성인지도가 높아질수록 결혼만족도 역시 증가한다는 결과는 부부간 가사노동분담 그 자체뿐만 아니라 노동분담에 대한 평가 또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같은 주관적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보여 준다. 특히, 부인의 경

우 노동분담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편과 주부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부부간 노동분담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평일 하루 부인은 평균 9시간 39분을 남편은 1시간 16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고 있었고, 휴일에는 부인이 평균 10시간을 남편은 3시간 8분을 할애하고 있었다.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남편의 상대적 가사노동시간을 측정하였는데, 평일에는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중 15%정도를 휴일에는 37%정도를 남편이 분담하고 있었다. 부인의 경우 공휴일과 평

일의 구분과 관계없이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고 있었고, 남편의 경우 휴일에 참여가 다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을 결정하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은 주부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남편 자신의 시장노동시간과 근로시간의 융통성 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의 취업이 급증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취업주부의 이중노동분담'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취업주부 차원 뿐만 아니라 남편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남편의 취업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융통성, 근로시간의 감소 등은 맞벌이 가정의 가사노동과 관련한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음을 알려 준다. 물론, 가사노동은 더 이상 주부의 책임이 아니라 부부 공동의 책임이며, 가사노동 및 가정생활은 노동력 재생산, 행복한 삶, 그리고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임을 우선적으로 인식하여, 맞벌이가정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사노동분담은 주부뿐만 아니라 남편의 복지감 및 부부의 결혼만족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결국, 가사노동분담은 맞벌이가정에서 필수사항일 뿐 아니라 전업주부가정에도 부부의 결혼만족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족의 복지감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남편의 의무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부부의 복지감을 증진시키고 부부의 결혼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인식하여야 함을 이 연구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시간조사를 통한 양적 측면만을 연구하였다. 양적 측면 이외에도 가사노동의 각 과업에 따른 성격, 난이도, 성취감 등의 질적인 면이 고려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같은 양의 가사노동시간이라 할지라도 활동내용에 따라 노동참여의 동기, 노동과정의 피로감과 반복감, 노동후의 성취도 및 만족감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가사

노동의 질적 측면의 차이는 결혼만족도에도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가사노동 및 육아노동시간의 양적 측면 이외에 질적 측면의 연구가 병행되어야겠다.

둘째, 맞벌이가족과 전업주부가족이 처한 상황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해 두 집단을 구분하여 가사노동분담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공평성인지는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가정과 비취업주부가정을 구별하여 분석하는 것도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배경변수, 주부의 배경변수 그리고 가정환경 변수들로 구분하여 남편과 주부의 가사노동분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변수들을 선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이외의 요인들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로써 공평성인지 개념을 도입, 그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이 이외에도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관적 개념을 고려해 보아야겠다. 예를 들면,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주부의 기대감의 정도, 남편의 가사노동성과에 대한 부인의 평가, 가사노동과 관련한 부인의 수행표준 등의 개념을 고려할 수 있다.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결정요인 연구 뿐만 아니라 분담의 결과 또는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 등에 대해 계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김정희(1993).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경제적 가치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1, 4, 37-51.
- 2) 문숙재(1991).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 2, 285-302.
- 3) 박주희(1993). 취업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성별 분리정도.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석사학위논문.
- 4) 송혜림(1988). 남편의 가사노동협력에 대한 주부의 기대 및 남편의 협력실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윤명희(1985). 도시남편의 결혼만족도와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6) 이기영, 송혜림, 이승미, 민순선, 서지원(1996). 도시 남성근로자의 생활시간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 1, 97-112.
- 7) 이기영, 이승미(1994). 가정생활 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2, (3), 11-26.
- 8) 이기영, 이승미(1994).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2, 11-26.
- 9) 이정수, 고경애(1985).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의 관계-대도시와 소도시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23, 67-90.
- 10) 이현아(1994). 남편의 생활시간구조와 가정생활 문제에 관한 부부의 지각-장시간노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임정빈 외(1992). 1980년과 1990년 도시 주부의 생활시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2(1).
- 12) 조미환(1996).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3) 한국연감사(1992). 한국연감, 316-317.
- 14) 허경옥(1994). 부의 자녀 양육에의 참여시간 결정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3), 63-70.
- 15) 허경옥(1994).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90-105.
- 16) 허경옥(1997). 부인과 남편의 시간배분구조 분석: 가정생산모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 1.
- 17) 통계청(1994). 한국의 사회지표, 60-67.
- 18) 통계청(1995). 한국통계월보, 37, 81-84.
- 19) Barnett, R. C., & Baruch, G. (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29-40.
- 20) Bergen, E. (1990).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domestic labor: An investigation of husbands' participation.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Univ. of Wisconsin. NSFH working paper, CDE, Univ. of Wisconsin-Madison.
- 21) Berk, S. F. (1985). The gender favctory: the apportionment of weak in American household. NewYork: Plenum Press.
- 22) Blair, S. L. (1992). Wives' perceptions of the fairness of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The intersection of housework and ideolog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570-581.
- 23) Blood, R. O., & Wolfe, D. M. (1960). Husbands and wives. NewYork, the Free Press.
- 24) Coltrane, S. (1990). Birth timing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dual-earner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11, 157-181.
- 25) Condran, J., & Bode, J. (1982). Rashomon, working wives, and family division of labor: Middle-town. Journal of mily. 44, 421-426.
- 26) Coltrane, S., & Ishii-Kuntz, M. (1992). Men's housework : A life course perceptiv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43-57.
- 27) Coverman, S. (1985). Explaining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Sociological Quarterly, 26, 81-97.
- 28) Coverman, S., & Sheley, J. (1986). Change in men's housework and child-care time, 1965-1975.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13-422.
- 29) Hochschild, A. (1989). The second shift. NewYork: viking.
- 30) Huber, J., & Spitze, G. (1983). Sex stratification: Children, housework, and jobs. 75-77. Academic Press.
- 31) Lim, J. (1993). The effects of husband's household labor on wife's life satisfaction. University of Wisconsin, master of science.
- 32) McHale, S. M., & Huston, T. L. (1984). Men and women as parents: sex role orientations, employment, and parental roles with infants. Child Development, 55, 1349-1361.
- 33) Maret, E., & Finaly, B. (1984). The distributionn of household labor among women in dual-earner

-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357-364.
- 34) Parejko, J. K. (1990). Sharing the second shift : The relationship of men's role in family work to wives' marital happiness in full-time dual-earner couples. Master's Thesis.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35) Perry-Jenkins, M. Crouter, A. C.(1990). Men's provider-role attitudes: Implications for household work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11, 2, 136-156.
- 36) Pina, D. L., & Bengtson, V. L.(1993).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wives' happiness: Ideology, employment, and perceptions of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01-912.
- 37) Pleck, J. H.(1985). *Working wives/working husbands*. Beverly Hills Sage.
- 38) Rexroat, C., & Shehan, C. (1987). The family life cycle and spouses' time in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737-750.
- 39) Ross, C. E., Mirowsky, J., Huber, J. (1983). Dividing work, sharing work, and in-between: Marriage patterns and depres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809-833.
- 40) Suitor, J. J.(1991). Marital quality and satisfaction with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221-230.
- 41) Thompson, L. (1991). Family work: Women's sense of fairness. *Journal of Family Issues*, 12, 2, 181-196.
- 42) Warner, R. L. (1986). Alternative strategies for measuring household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Family Issues*, 7, 179-195.
- 43) Yogev, S., & Brett, J. (1985). Perceptions of the division of housework and child care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609-618.